

## 20세기 평양 대 부흥운동과 21세기 복음문화운동

김은혜 (장신대 초빙교수 / 기독교윤리학)

- I. 문명사적 전환기에 선 한국사회와 교회
- II. 1907년의 부흥의 의미와 21세기 생명문화
- III. 죄 고백과 삶의 변화
- IV. 제2의 영적인 각성운동과 복음문화운동
- V. 삶-중심적인 영성(Life-centered Spirituality) 과 복음문화형성

---

• ABSTRACT •

---

According to many scholars, 21 century has been faced a crisis of spiritual dimension. People have lost their peace of inner life and inner world. In this sense, 1907 Great Spiritual Awakening challenges us with various spirits and characters. Among these characters, this paper will focus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daily life which appeared mainly in this movement . The Great Revival of Pyeng Yang showed a radical change of Christian life itself through the confession of sin. This was the work of spirit which was dynamic and alive in Christian faith of that period. Therefore, this practical and concrete spiritual work which appeared in Christian's everyday life through the Pyeng Yang Great revival will present us with very important insight and wisdom in order to overcome the spiritual crisis of Korean church of 21th century.

The work of Spirit in this 21th century must reappear with power of giving life and making life to all kinds of living things through thorough repentance of Christians and Korean churches while the work of Spirit in 1907 made people repent their sin and completely transformed their life. The complete changes of characters of Christian individuals are the most crucial spirit of 1907 awakening movement which we must learn and follow. Therefor it is the necessary to criticize about a dualistic understanding between Spirit and life and contemplation and act. We should understand the power of spirit in relation to life and society because we can not realize the work of spirit which is separated from the everyday life and social life of Christians.

The spirituality of 1907 year's awakening movement we must remember and follow, is the spirit of life and the spirit of transformation of life.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mission of Korean church in 21th century is the way of evangelizing through the change of life and harmonious cooperation between the life and faith of Korean Christians. This is the movement of gospel-culture. The movement of gospel -culture is the work of cultural transformation by producing a new meaning system and a new value system through radical change of ways of Christians' life.

**Keywords**: Pyungyang Great Revival of 1907 year, Culture of Gospel, Spirituality.  
Transformation of Life, Transform of Society.

---

## I. 문명사적 전환기에 선 한국사회와 교회

21세기 문명의 대전환기<sup>1)</sup>에 선 한국교회가 20세기 초 평양에서부터 일어났던 영적 대 각성운동의 의미<sup>2)</sup>를 되새기는 것은 100년의 역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한국그리스도인들의 성령강림의 체험이 개인과 교회 그리고 민족의 변화와 갱신으로 확산되었던 성령운동이었다. 특별히 1907년 대 부흥운동의 중요한 정신들 중에 신앙의 내면화를 통한 삶의 변화야말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다시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1907년 대 부흥운동에 나타난 철저한 내면적이고 영적인 변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된 사실은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사회와 역사를 향해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을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0년이 넘는 긴 기독교역사 속에서 참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

- 
- 1) 최근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21세기의 다양한 징조들을 분석하며 조심스레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그 징조의 내용은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재앙, 인구 폭발과 에너지 위기, 경기불황과 실업, 범죄증가와 도덕성의 타락, 가치관의 대혼란, 과학 기술의 진보와 무한 경쟁 등이다. 대표적인 학자와 저서로는 칼 세이건(지구환경), 존 레슬리(충격대 예측 세계의 종말), 다니엘 벨(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새뮤얼 P. 헌팅턴(문명 충돌) 라비 바트라(세계 대공황) 등이 있다.
  - 2) 교회사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이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고 민경배 교수는 이 운동을 성령강림 부흥운동으로 주재용 교수는 부흥의 부정적 의미를 지적하면서 “1907년 한국교회 성령강림운동” 혹은 “1907년 한국교회 오순절 운동”이 더 적합한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임희국 교수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흥운동보다는 “신앙 각성운동”이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모든 입장들을 존중하면서도 특별히 영적인 각성이 요구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해 영적각성운동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학술자료집』 Again 1907 2006서울성령복음화대회, 2006. 1, 38-29.

고 있다. 특별하다는 의미는 우리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고 또한 21세기는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와의 급진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모두들 자신이 살아온 시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루가 무섭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하는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위기 속에 있는 한국사회의 혼란과 한국교회의 방향성 상실은 본질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21세기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문명의 유익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또한 외형적인 교회 성장 그리고 성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풍요롭고 화려하며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적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와 지구 곳곳에서는 인간과 자연생명의 고통과 아픔으로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히 인간의 내면세계의 붕괴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도덕적 타락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은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영적위기를 나타내고 있다.<sup>4)</sup>

이러한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기위해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교회사적인 사건으로 1907년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준다. 성령을 받아 죄 고백을 하

3) 오늘의 인류는 불과 몇 년 내에 과거 5만년 보다 더욱 큰 지구적 변화를 맞이하는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지금 우리 인류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앞으로 지난 30억년동안 경험한 생태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Shocking Figure” 『24차 세계개혁교회연맹 자료집』 2004년 8월.

4)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범죄율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 성폭행율, 저출산율은 모두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방지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 38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으며 자살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1위이다. 최근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위해 어머니가 자녀를 죽이고 친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등 인륜을 파괴하는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정신적 공황상태 넘어 인명경시와 인간관계의 파괴와 인간성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사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이 역사적 사실은 한국그리스도인들의 신앙형태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획을 그었다.<sup>5)</sup>

신앙의 내면화가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필자는 현재 인류의 위기와 한국사회의 혼란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더욱 철저한 내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인간 내면의 변화는 이성애 기초한 논리가 아니라 뿌리 깊은 영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로 부르는 이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07년의 영적 각성운동의 연구와 성찰은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사적 의미 뿐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따라서 1907년의 정신을 이어가는 제2의 영적 각성운동의 필요성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 한사람 한사람의 철저한 신앙의 내면화로 영적인 각성과 도덕적인 성숙을 회복시키므로 빠르게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1907년 영적 각성은 지난 30여 년간 신앙의 형식화와 외형화로 바리새인과 같은 겉모양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왔으며 부흥의 의미를 외적 성장과 물질 축복으로 왜곡 시켜온 한국교회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갱신의 촉구한다.

본 논문은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신앙 대 각성운동의 영성과 정신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21세기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정립하기위해 영성과 생활, 기도와 행동 그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점을 지향하는 복음문화운동<sup>6)</sup>의 필요성을 연구할 것이다.

5) 민경배 교수는 1907년의 대 부흥 운동은 민족의 죄의식을 일깨워 한국그리스도인들의 독자적인 신앙이 확립되었으며 이 사건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신학을 정립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학술자료집』(2007년 2월 2006 서울 성령복음화대회), 2006, 24-27.

6) 각 교단별로 100주년이 되는 2007년을 예비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 특별히 필자가

필자는 복음문화운동이야말로 1907년의 정신을 이어갈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의를 발전시키는 대안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양 대 부흥운동의 정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본 논문이 관심하는 것은 죄의 철저하고 공개적 고백을 통한 신앙의 내면화로 삶의 급진적인 성화를 가능하게 했던 삶 중심적 영성과 복음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복음문화운동<sup>7)</sup>에 중점을 두었다.

## II. 1907년의 부흥의 의미와 21세기 생명문화

1907년의 성령의 역사가 신앙의 내면화를 통한 삶의 성화의 과정이었다면 21세기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근원적 전환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영성이어야 한다. E. H. 카가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정의했다면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역사란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 사이의 대화'라는 재정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역사현실을 규정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하였다.<sup>8)</sup> 현재

---

참여하는 2007 포럼은 1907년의 평양 대 부흥운동의 정신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1907년의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성령운동이고 죄를 통회하는 회개운동이며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복음문화운동이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려는 신앙생활운동이며 성경을 다시 배우고 익히는 말씀회복운동이며 선교한국 비전을 실현하는 선교운동이며 양성평등문화를 꽃피우는 평등운동이며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평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은 2007 홈 페이지( <http://2007forum.net>)에서 볼 수 있다. 복음문화운동은 1907년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07포럼에서 제안한 운동으로 필자는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초하여 구별되고 성별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7) 복음문화운동은 문화를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복음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방식을 통해 기독교의 대안적 의미체계와 가치체계를 제시하여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문화 저항과 문화 변화와 문화 창달을 추구하는 것이다.

8)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서울: 푸른역사, 2000), 9.

인류의 위기는 생명의 위기이다. 생명의 위기는 인간문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1907년의 대 각성운동의 핵심정신이 변화와 갱신이였다면 21세기 복음 문화운동의 정신은 생명과 평화이다. 이것은 반생명문화를 생명문화로 평화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역사적 사건의 정신을 역동적으로 살아 있게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나타나는 정신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정신과의 대화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에 생명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생명파괴의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복음문화운동은 21세기 생명파괴에 대한 회개와 갱신으로 시작되며 복음문화운동을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삶의 성화는 생명살림의 문화로 구체화되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의 성육신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문화형성은 복음문화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부흥”은 인간의 삶과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생명(life)과 각성(awakening)을 의미한다.<sup>9)</sup> 부흥의 사전적 의미는 쇠하였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즉 부흥은 하나님의 생기로 모든 것이 숨을 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점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기운을 북돋오시며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즉 1907년의 평양의 영적인 대 각성운동은 기울어가는 민족의 쇠퇴로 비애와 절망감이 온 백성의 마음을 짓누를 때 다시 생명과 삶의 역동성을 회복시킨

9) 이상규,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2007 포럼 발표논문, 2005, 4.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

평양 대 부흥운동의 특징은 성령의 힘에 압도되어 자신의 극악한 죄를 견딜 수 없이 통회하며 몸부림치는 철저한 회개와 죄 용서의 기쁨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본 회퍼에 따르면 죄 고백의 의미는 새 생명의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sup>10)</sup> 자신들의 죄를 낱알이 공중 앞에서 고백한 것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sup>11)</sup> 이 때 죄 고백은 “바닥에 고꾸라져 바닥에 부딪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죽기 직전에 투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했다.<sup>12)</sup> 즉 1907년의 죄고백은 일회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1907년 영적 대 각성운동에 나타난 삶의 변화는 복음문화운동의 원형으로 역사적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은 그해 1월 평양 장대현교 회에서 길선주 장로에 의해 시작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던 길 장로가 자신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으며 회개하자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자극 받은 교인들도 잇따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오후 7시에 시작된 예배가 다음날 새벽 2시가 넘도록 고백과 회개의 행렬이 이어졌다.<sup>13)</sup> 그러나 죄론을 강조해온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 고백만 있을 뿐 그 이후의 삶의 변화를 통한 성화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값싼 은총만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신학계는 이 부흥운동을 그 당시 한국 민족이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10) 현요한, “평양 대 부흥 운동에 나타난 죄 고백의 신학적 의미와 리더쉽,” 『소망신학포럼 자료집』 2005, 40.

11) 박용규, 『평양 대 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222-3.

12) 위의 책, 233.

13) 박용규, 『평양 대 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230.

신앙을 통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도덕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각별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죄고백이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부흥의 결과로 나타났던 역사적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07년의 영적 대 각성운동의 정신을 교회의 숫적 증가나 외적 팽창과 동일시하면 그것이 가지는 근본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죄 고백과 회개의 역사는 성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sup>14)</sup> 이러한 의미에서 임희국은 1907년의 평양의 대 각성운동은 부흥이란 표현보다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신앙각성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sup>15)</sup>

이러한 1907년 운동은 한국교회의 신앙형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민경배에 따르면 이 운동이 이후에 끼친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부정적으로는 “기독교의 분파적 경건의 형성이” 여기에 기원했다는 것과 긍정적으로는 신앙의 생활화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자각으로 보는 입장으로 말한다.<sup>16)</sup> 부정적 의미에서는 이때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비정치화와 탈역사화의 과정이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 관계와 교회공동체의 회복으로 신앙을 일상의 생활 속에 실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의 갈등과 반목이 지금처럼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현실에서 대사회적 개혁을 부르짖기보다는 교회내적인 변화와 교회간의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 변화를 추구

14) 현요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평양 대 부흥운동에 나타난 죄 고백의 신학적 의미와 리더십,” 『소망포럼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10, 45.

15)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 각성운동을 중심으로,” 『소망신학포럼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10), 19.

1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3), 212.

필자는 이 논문에서 1907년 대 부흥운동에 대한 비판보다는 긍정적 정신을 부각시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갱신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기 위한 재해석의 연구를 하였다.

해야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고려 할 때 1907년의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1907년이 보여준 부흥의 의미는 내적 신앙과 외적 생활의 일치와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7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추구하여온 외형적 성장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 교훈을 준다. 백낙준과 이장식은 평양의 대 각성운동은 수적 증가로 인한 교세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삶이 바뀌는 윤리적 결단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7)</sup> 부흥은 개인의 변화와 교회의 갱신을 통한 결과이지 이것이 먼저 올 수 없으며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즉 부흥은 개인의 삶의 변화와 교회의 갱신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되살아나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부흥은 2세기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힘으로 나타나야한다. 부흥은 2세기에 전쟁과 폭력과 기아와 죽음이 만연한 반 생명현실에 대한 영적인 각성으로 생명문화운동으로 다시 일어나야한다. 21세기 생명의 의미는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적 생명은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충만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의 충만함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21세기 복음문화운동의 핵심인 생명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고 죄고백과 생활의 변화는 복음문화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17) 임희국 교수는 1907년에는 개신교 교인수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1907년의 운동이 끝난 후에 백만구령운동(1910-1911)으로 전개되었다고 밝힌다.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395; 이장식,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185,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1907년 평양 대 각성운동을 중심으로” 재인용, 임희국 위의 논문, 19.

### III. 죄 고백과 삶의 변화

공개적인 죄고백과 급진적 생활의 변화는 1907년의 평양 대 부흥운동이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성격이다. 이 때의 성령강림의 체험은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가치와 방식을 급격하게 전환시킨 운동이었다. 즉 신앙적 내면화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성화의 길로 이끌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성화의 삶은 나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sup>18)</sup> 이러한 놀라운 죄 고백과 거듭남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체험의 결과였다. 즉 1907년의 성령체험, 내적변화, 생활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이 동시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사건이었다.

1907년의 평양 대 부흥운동은 1903년 겨울 원주에서 남 감리회의 하디 선교사(R. A. Hardie)가 시작하여 그 절정에 이르렀다. 하디는 성령강림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신 심증을 가지고서 나의 부끄러움과 혼미에 찬 얼굴로 나의 교만과 마음의 포악함과 신앙의 부족함과 또 그 상태가 빚어낸 모든 결과를 자복하니 회중은 강한 죄의식과 회개의 신앙생활 체험상의 작용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단순한 신앙으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알려주었다.”<sup>19)</sup> 하디선교사는 원산의 연합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며 이러한 회개는 신앙생활의 체험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sup>20)</sup>

18) 민경배 교수는 대 부흥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전체를 바꾸고 국민의 품격을 고양시켰으며 한국을 기독교화한 운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07년의 대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적 교찰,” 『신학학술대회 자료집』 (2007 포럼 서울성령복음화대회, 2006) 35.

19) 박용규, 『평양 대 부흥운동』 58-59.

20)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108-109.

정익로 장로의 고백을 보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 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 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조심에 쌓인 얼굴로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 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영적인 각성은 죄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한국인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어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였다.<sup>22)</sup>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사미자는 “대 부흥운동의 중심현상으로서의 회심에 관한 종교심리학적 고찰”이라는 평양 대 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에서 내적인 세계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의식이 이전과 달라져야하고 이것은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했다.<sup>23)</sup> 필자는 1907년의 대 각성운동이 21세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별한 의의를 갖는 것은 당시의 죄 고백을 통한 신앙각성운동의 결과가 개인의 내적인 세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1907년의 운동은 사회적 관심에서 다시 개인적 관심으로 전환된 사건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던 영적운동이었다.

후기 근대사회는 근대사회를 지배했던 집단주의, 전체주의, 획일주의, 동질성 등을 비판하면서 개별성과 특수성, 이질성, 다양성 등을 중요시하는 시대이다. 최근 학문적 동향도 거대 담론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개인의

21) 박용규, 위의 책, 234.

22) 박용규, 위의 책, 470

23) 사미자, “대 부흥운동의 중심현상으로서의 회심에 관한 종교심리학적 고찰” 『학술자료집』 (2007포럼 서울성령복음화대회, 2006), 49.

주체성이 강조되며 다시 개별과 내적인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즉 근대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보편성과 전체성의 시대에서 21시기는 개별성과 내면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자신의 성찰과 변화를 역동적으로 실현하므로 다시 사회의 변화와 인류의 변화를 시도하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1907년의 내면의 변화와 그것을 통한 외적인 변화의 추동력은 이러한 근대 후기의 시대정신에 대한 적극적 응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07년의 내적 변화의 추구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붕괴되어가는 내면세계를 회복시키므로 삶의 급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성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sup>24)</sup> 더욱이 21세기 영성은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총체적 영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건주의 영성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 세상적, 몰 역사적, 개인 구원적, 이원론적, 그리고 현실도피적인 경향성에 대해 비판적이다.<sup>25)</sup> 이러한 회개를 통해 성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체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1907년 운동의 다양한 정신 중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가고 회복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1907년의 부흥이야말로 회개와 생활, 믿음과 행함, 신앙과 선행, 성령과 삶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준 운동이다.<sup>26)</sup> 이러한 특징은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화와 신앙의 문화화 그리고 신앙의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말한다.<sup>27)</sup> 또한 개인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은 가장 세속적인 도시인 평양을

24) 2003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세계생명문화포럼 2005년 대회에서 기초발표를 맡은 김지하는 지금이 전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점임을 시사하면서 이 전환점의 대 혼돈의 원인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다. 인간의 내면적 평화의 붕괴,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의 결점 노출, 테러와 전쟁, 문명 충돌, 지구 생태계 오염, 온난화,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등) 『동아시아 문예부흥과 생명평화』 2005년 세계 생명문화포럼 자료집.

25) 김흥기, “Again 1907,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 2007년 『학술자료집』 67.

26) 최근 신학적 연구는 교회와 세상 그리고 신앙과 삶 간의 이원론적인 이해보다는 두 개념 사이의 건강한 긴장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독교 도시로 변화되었다.<sup>28)</sup> 진정한 회개는 일회적이거나 감정적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 내적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나타냄으로서 교회의 부흥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특히 부흥회 기간 동안 자백한 죄의 내용을 보면 살인, 간음 절도, 횡령, 거짓말, 질투와 같은 보편적인 죄들도 많았지만 축첩과 조혼, 정략 결혼 노비제도와 술 담배와 같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봉건시대의 관습이나 행위들에 대한 죄들도 많았다. 그리고 단순히 고백의 차원으로 만이 아니라 첩을 내보내고, 술과 도박을 금했으며 종을 놓아주고 남성에게 종속되어있던 여성들이 지위가 향상되는 구체적 실천이 동반 되었다<sup>29)</sup> 더욱이 선교사 크램의 보고에 의하면 돈을 훔친 자는 돌려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며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으며 양반이라 하여 천민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종으로 알지 않고 친구요 형제로 대해겠다고 했다.

이러한 회개에 따른 실천은 지배적인 문화에 내재된 비 복음적 관습과 행위에 대한 신앙적 결단으로 기독교적 도덕성과 윤리관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졌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것들과 제도적, 사회적, 그리고 관습적인 즉 그 당시 지배적 문화의 가치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개혁되고 계몽되어 새로운 기독교 윤리관이 형성되었다. 또한 회개가 보편적인 도덕적 윤리적 인간의 성숙만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와 양립될 수 없었던 구한말의 지배적인 한국문화가

27) 김홍기, 위의 논문, 72.

28) 박용규, 『평양 대 부흥운동』, 287.

29) 이덕주, 『한국도착교회 형성사 연구』 146-147.

치들 즉 남존여비 그리고 양반과 상놈의 불평등 계급질서, 축첩과 같은 관혼상제 등 그 시대적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경험이다.

또한 죄 고백 뿐 아니라 사경회를 통한 말씀에 대한 배움은 곧바로 전도와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다. 사경회의 두드러진 효과는 계몽과 각성이었다. 즉 성경을 배움으로 삶이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색잡기를 근절하였으며 미신과 우상을 버리는 개인적 변화와 어떤 여성은 자신이 부리던 종을 자유케하여 낡은 관습과 세습신분제를 폐지하는 사회적 변화로도 나타났다. 신학월보를 보면 그 당시 선각적인 신앙인들은 성경을 배우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sup>30)</sup> 또한 이러한 말씀공부는 ‘내 동포의 건짐(구원)을 모른 채 하면서 제 영혼 하나 구원을 얻고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잠자는 동포를 깨우치는 일 즉 개인적 각성 뿐 아니라 대중의 각성과 계몽에도 영향을 주었다.<sup>31)</sup>

즉 죄 고백과 성령체험은 종교적 감정적 체험 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 성숙과 가치관의 변화로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은 비로소 한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였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초한 윤리관을 형성하는 초기적 단계의 기독교문화형성을 이루어내는 사건이었다. 개혁신학의 전통은 세속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아래 있음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삶과 동시에 윤리적인 삶을 강조한다. 따라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고 역사에 참여하며 문화의 변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sup>32)</sup> 복음문화란

30)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 각성운동을 중심으로,” 16.

31) 위의 논문, 12.

32) 김영재, “초기 한국교회 대 부흥의 역사적 의미,” 2007포럼 발표논문, 2005, 10.

광의의 뜻으로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문화적 형식과 내용을 통해 표현되어진 다양한 삶의 양식이다. 성화의 과정은 곧 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영적인 삶으로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길이다.<sup>33)</sup> 복음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성립이 기독교 문화형성에 중요한 기초이다. 따라서 복음 문화운동은 단순한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현상 적 분석과 비판을 넘어서는 삶의 총체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양 대 부흥운동에 대한 비판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비판은 부흥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한국교회의 비정치와 탈역사화에 대한 비판이다. 박순경의 연구 데로 20세기 초 민족이 몰락하던 시기에 기독교가 부흥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한국그리스도인의 죄 고백은 “망국의 운명을 전적으로 한국인의 죄의 결과로 ” 보게 함으로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외세들과 결부되었던 상황을 몰인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 각성운동은 한국 개신교가 민족의 문제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의 시초였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신앙각성운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개인의 내면세계 속으로 축소되면서 사회와 민족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907년이 보여준 대 각성운동을 시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관점을 함께 성찰하고 극복해야한다. 이러한 때 교파주의와 교회의 분열로 대 사회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예언자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깨우는 성령이 생동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즉 1907년의 영적인 각성이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 성화를 통해 구체적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영성으로 표현되었지만 21세기는 삶 중심적 영적 각성은 사회적고 역사적며 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성으로 확대되어야한다. 또한 신앙을

33)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 각성운동을 중심으로,” 16

생활화하고 문화화하는 복음문화운동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생활현장에 스며들도록 하여 일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내면화는 개인의 성화로, 사회적 성화로 그리고 모든 생명이 회복되는 온 우주적 성화로 확산되어지고 상호연결되어진 운동이어야 한다.

#### IV. 제 2의 영적인 각성운동과 복음문화운동

필자는 21세기야말로 영적인 대 각성 운동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하는 시대적 정신을 읽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많은 학자들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위기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내면세계의 붕괴 둘째,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 셋째, 생태계의 위기, 넷째, 테러와 전쟁, 다섯째, 핵무기의 위협, 여섯째 종교 간의 갈등과 문명충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인류와 전 지구공동체적 위기는 단순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의 문명사적인 대 전환기임을 알려주는 징조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존재하는 인간의 내적세계의 붕괴에 대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1907년의 영적 대 각성운동의 정신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와 회복을 추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통찰과 지혜를 준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위기를 깊이 성찰하고 인류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 할 수 있는 통전적 영성<sup>34)</sup>을 갖추어야하고 21세기 한국교회와

34) 김영동교수는 통전적 영성이란 신 혹은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 내면적 상태나 개인적 절대자에 대한 관상일 뿐 아니라 내면과 외면, 관상과 행동,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영동, “한국기독교인의 영성과 한국전통종교와 문화의 상관성연구” 『21세기 기독교 영성과 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소망신학포럼,

한국사회의 문제는 인간의 내면과 마음의 붕괴에 있음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sup>35)</sup> 21세기 기독교 영성은 기도와 행위, 명상과 실천의 관계 안에서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과 자연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성은 구체적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sup>36)</sup> 이러한 의미에서 영성은 신앙을 사회문화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대한 이분법적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내적이고 존재론적인 인간의 변화로 성화의 삶을 통해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 복음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즉 21세기를 좀 더 근원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문명전환의 시대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변화나 제도적 변화 또는 정치적 신념의 변화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는 보다 총체적 삶의 양식의 전환 다시 말해서 문화 변화<sup>37)</sup>를 지향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변화가 가장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문화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완

2005), 4.

35) 마음의 평화와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은 비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마음수련원, 요가, 단학 등은 내면세계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36) 김영동, 위의 논문, 5.

37) 리처드 니이버에게 문화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성취(자연과 구별 풀이며 가치의 물질적 형성화)이고 모든 문화는 다원적 특성을 갖는다. 리처드 니버: 문화란 인간을 위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이룩한 행위의 총칭 (R. Niebuhr, *Christ and Culture*, Harper & Brothers, 1951, 32-39) 폴 틸리히는 문화를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 하는데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고 정의하다. 인류학자인 클리포드 어오츠는 문화는 전해 내려오는 상징체계 (John Story,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1993) 최근 문화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문화란 고급문화나 대중문화 그리고 전통문화와 같은 협의의 영역을 넘어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삶의 양식들을 나타내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삶의 총체적인 양식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신학적 발전도 경제적 분석과 비판 그리고 정치적 저항과 투쟁을 넘어 마치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대중문화)에 대한 문화비평과 문화 형성에 대한 적극적 신학의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세계화의 빠른 확대로 최근 많은 단체와 국민들은 한국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하는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sup>38)</sup> 인류가 당면한 이슈들을 물질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그것을 위해 전력질주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를 만들어왔다.<sup>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시작하는 새 천년의 벽두에 우리는 역사상 유래 없는 빈부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sup>40)</sup>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sup>41)</sup>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앙으로 상상 할 수 없는 수의 죽음의 행렬은 과학기술이 증명하는 핑크빛 꿈을 꾸기에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다. 한국사회 또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던 양극화의 현상과 닥쳐올 미래에 대한 증폭된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매일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는 인명경시와 인간관계의 파괴

38) 최근 신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는 자살, 가정파탄, 인륜을 짓밟는 범죄, 개인적 분노로 인한 무차별 방화와 살인 등으로 나타남

39) 2000년에는 7초에 한명씩 굶주려 죽었고 2005년 인권의 날 보고에 의하면 3초에 한명씩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세계현실이다. 우리가 경제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을 때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40) 세계인구중 최고 부자 1%의 년 수입과 57%로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이 동일하다는 통계는 이것을 실감케 합니다. 세계 497명의 억만장자들의 1%만 내어 놓는다면 전 지구상의 기본적 생활문제가 해결된다. 20%의 경제적 상류층이 지구의 부의 83%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 20%가 11%, 60%에 해당하는 경제적 빈곤층이 나머지 6%의 부를 나누어 갖고 있다.

41) 과학자들은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연간 4만-5만종의 생물들이 인간 때문에 멸종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100년 뒤에는 약 3000만 종 가량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생물종 가운데 절반이 사라지며 호모 사피엔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 2004/3/6)

와 인간성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정신적 공백상태의 사회를 직면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이끌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복음을 실천하여 지배하는 가치<sup>43)</sup>에 저항하기위해 뿌리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한국교회가 응답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타락과 가치의 혼란과 윤리적 해체 등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현실이 더욱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적인 각성은 종교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초한 도덕적 윤리적 결단으로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한다. 1907년의 신앙각성운동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한 정체된 한국교회를 향해 다시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은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21세기 선교적 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개인의 삶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장의 지연이나 급감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상실하고 현존하는 사회문화적 지배가치들 즉 특별히 가부장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 성장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소비주의와 혼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급속히 세속화되어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어느 곳서도 그것이 경제이든 교육이든 정치든 사회든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구별된 가치와

42) 최근 통계청의 한국사회의 자살 통계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3년에는 만 명이 넘었다. 통계는 48분마다 한사람씩 자살하고 1분 20초마다 누군가는 자살을 시도한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43) 21세기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물질중심주의, 무한 성장주의, 무한경쟁주의, 상업주의, 소비주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저항할 수 없는 영향 하에 놓여 있다.

삶의 방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지난 10 여 년간 교회성장의 정체와 대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감소시켰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07년 대 각성운동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삶의 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복음문화운동의 중요한 두 가지 전제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정립이다. 인류학자인 클리포드 기어츠는 종교적 개념이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것을 넘어서 지적 감정적 도덕적 경험에 의미 있는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sup>44)</sup>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의 도덕적 측면이나 평가적 요소는 에토스(ethos)라는 용어로 또한 인지적 존재론적 측면은 세계관(world view)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왔다.<sup>45)</sup> 즉 에토스는 그들이 생활의 색조, 성격, 성질, 도덕적 미적 양식이며 분위기이고 세계관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그림이며 개념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복음문화운동은 복음적 세계관과 에토스의 형성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은 지역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마치 숨을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가치가 뿌리내리는 기독교문화형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문화운동의 형식과 내용은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초로 하나님나라의 대안적 의미체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복음문화운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본주의의 경쟁문화나 소비문화와 같은 반 생명문화대신에 돌봄과 섬김과 나눔의 문화와 같은 생명문화의 가치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지배가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44) 클리포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1999), 154.

45) 위의 책, 157.

있지만 특별히 필자는 문화주의(Culturalism)에 영향을 준 문화의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즉 문화는 특정한 삶의 표현이며 어떤 의미와 가치의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 분석을 통해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특정한 문화에 내재되거나 표출된 의미와 가치들을 명확히 하고 재구성 할 수 있다.<sup>46)</sup>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문화적 가치를 분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 신앙적이고 비 복음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복음문화운동은 그리스도인의 대안적 삶을 통해 이 사회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특정한 의미체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기어츠의 문화이해는 특별히 의미체계로서 “문화는 상징 가운데 구현된 의미가 역사적으로 전달된 형태이며 즉 인간의 그것을 통하여 생활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서로 전달 영속화하고 발전시키는 상징의 한 형태로 표현되는 전해 내려오는 개념체계“<sup>47)</sup>라고 정의한다. 또한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문화는 필연적으로 물질적 형태를 (문자 형상 소리 재료)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활동의 중심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이다.<sup>48)</sup> 따라서 복음문화운동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적 삶의 태도, 방식, 내용을 통해 기독교적 정신과 영성이 사회 속에 뿌리내려 기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삶의 양식을 표현하게 된다. 기독교의 정체성과 복음의 역동성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46) 존 스토리, 박모 번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9,) 81-82.

47) 인류학에서 정리된 문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있다 1.한 민족의 총체적 생활양식 2. 개인의 그의 집단으로부터 물려 받은 사회적 유산 3.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방식 4. 행위로부터의 추상물 5. 한 민족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인류학자의 이론 6. 모든 학습된 것의 저장소 7. 재발되는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표준화된 대응 방향 8. 학습된 행위 9. 행위에 대한 규범적 규제를 위한 기제 9. 외부 환경 및 타인에 대한 일련의 적응기술, 클리포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13.

48) 문화선교연구원 역음, 『기독교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 (예영, 2005). 78.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 영성은 신앙과 삶 그리고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 텔리히가 속의 깊이의 차원에서 성스러움을 이야기 한 것은 우리에게 이원론적인 신학적 관점을 극복하도록 돕는다.<sup>49)</sup> 즉 성화의 삶은 복음을 받아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복음문화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V. 삶-중심적인 영성(Life-centered Spirituality)과 복음문화형성

1907년 대 부흥 운동은 성령운동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그 역동성과 생명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반성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하여 온 고도의 교회성장위주의 목회는 외형적이고 물량적 성장과 개 교회주의와 교파주의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강한 비판을 받으며 사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충분히 증거 하지 못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신앙의 삶은 찾아 볼 수 없고 신앙의 외형은 있으나 신앙의 내적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교회정체성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지난 역사 속에 한국교회를 통해 이해되었던 성령의 사역은 삶에서 분리되어진 교회 중심적이고 저 세상적이며 초월적인 세계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와 역사 속에서 그 역동성을 상실하여 왔다. 삶에서 분리되어진 영성에 대한 이해는 부흥의 의미를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물량적인 발전으로 그리고 탈 역사적, 비사회적, 반 생태적 성령의 사역으로 협소화시키며 가난한자와 고통 받는 자, 그리고 생태계의

49) 폴 텔리히, 『문화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2.

파괴로 신음하는 생명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해왔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역사와 사회를 떠나서 말 하수 없다. 신앙의 내면과 외면을 통합 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영성을 보여줌으로 1907년에 나타난 영적 대 각성운동은 한국교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 땅에 복음적 생명문화 형성을 지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1907의 영적 대 각성 운동은 복음과 문화의 만남을 통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위에 삶의 실천과 행위로 문화 변혁적 관계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성령의 체험은 개인적이고 신비한 체험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우주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문화 창조와 변혁의 영성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 식물, 물, 지구, 우주 전체와 관련되어져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구 신학에서 성령은 몸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했으며 구체적인 사회와 세계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했다. 또한 배타적 신정통주의 신학은 성령을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만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90년대부터 신학적 논의가 되어온 새로운 개념의 영성은 삶과 상관성 안에서 수평적이고 내재적 개방적 창조적 영성(Spirituality) 강조함으로 지금 이곳에서의 영원함과 가락함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21세기 영성은 개인의 영성의 개발과 동시에 사회적 영성은 우주적 영성과의 관계 속에서 대 부흥의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뿐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통전적 영성이다. 21세기 영성은 삶의 고통과 현존하는 삶의 억압을 대항하며 투쟁하도록 우리를 도우며, 때로는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어내도록 힘을 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하는 힘의 근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삶 중심적 영성은 복음문화형성을 통하여 인간의 삶과 온 우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

고 복음적 문화변혁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에 근원적 힘을 제공한다. 더욱이 기독교 영성은 우리에게 다양한 세계관의 긴장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줄 뿐 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고통 받고 지배받는 생명들을 치유하고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양 대 부흥운동에서 나타난 내면적이고 영적인 변화와 삶의 개혁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지향하는 복음문화운동의 실체이며 영성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력이다. 21세기 복음 문화운동은 문화 창달과 문화변혁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의 평화와 생명을 가져주며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을 주는 힘으로서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 성령은 초월 할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와 속에 내재하는 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성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성이 삶 중심적 영성이다. 이러한 영성은 폭력과 전쟁, 자연파괴와 인간존엄성의 상실 그리고 무한 경쟁주의와 상업주의, 소비문화와 같은 반생명문화를 생명의 영성을 통하여 생명의 문화 그리고 살림(삶)의 문화로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만남의 장을 문화 속에서 가능하고 문화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21세기의 복음문화는 영성, 여성, 생명, 평화 등에 대한 응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가 21세기 복음문화운동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다. 1907년 성령운동으로 교회가 민족의 교회 그리고 겨레의 교회가 되었던 정신을 회복하여 21세기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요 이 겨레의 소망임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양식으로 전환함으로 복음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다시 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 참고문헌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박용규, 『평양 대 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민경배, “1907년의 대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적 교찰,” 2007포럼 『신학학술대회 자료집』 2006년 1월 23일
- 김영동, “한국기독교인의 영성과 한국전통종교와 문화의 상관성연구“ 『소망신학 포럼: 21세기 기독교』 2005,10.
-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1907년 평양 대 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소망신학포럼: 21세기 기독교』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10.
- 김홍기, “Again 1907,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 『학술대회자료집』 2007포럼 성령 복음화대회, 2006 1.
- 현요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평양 대 부흥운동에 나타난 죄 고백의 신학적 의미와 리더십,” 『소망포럼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 이상규, “부흥운동 어떻게 오는가?,” 2007 포럼 발표 논문 2005.
- 김영재, “초기 한국 교회 대 부흥의 역사적 의미” 2007 포럼 발표논문, 2005.
- 폴 킬리히, 『문화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문화선교연구원 역음, 『기독교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5.
-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번역, 현실문화 연구 1999,
- 클리포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1999,
-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서울: 푸른 역사, 2000.
- 세계생명문화포럼, 『동아시아 문예부흥과 생명평화』 세계생명포럼 자료집, 2005.
- “Shocking Figure” 『24차 세계개혁신교회연맹 자료집』 2004년 8월.
- John Story,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1993.
- R. Niebuhr, *Christ and Culture*, Harper & Brothers, 1951.